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9)

山谷居士黃太史發願文 (산곡거사황태사발원문) ②

我從昔來 因癡有愛
아종식래 인치유애
飮酒食肉 增長愛渴 入邪見林 不得解脫
음주식육 증장애갈 입사견림 부득해탈
수저對佛 發大誓願
금저대불 발대서원
願從今日起 盡未來世 不復淫欲
원종금일 진미래세 불부음욕
願從今日起 盡未來世 不復飲酒
원종금일 진미래세 불부음주
願從今日起 盡未來世 不復食肉
원종금일 진미래세 불부식육

욕에 떨어져 뜨거운 쇠구슬을 삼키며
무량겁을 지내겠지만
일체중생이 고기를 먹은 까닭에 받게
되는 괴로운 과보를 내가 모두 대신 받
겠습니다.

願我以此盡未來際 忍事無量
願以此盡未來際 忍事無量
원아 이차진미래제인사서원
根塵對淨 具足十忍 不由他教
근진청정 구족십인 불유타교
入一切智 隨順如來
입일체지 수순여래
於無量劫 現作佛事
於無量劫 現作佛事
어무진중생계 현작불사
恭維十方諸佛 萬德莊嚴
공유시방통찰 만덕장엄
於刹刹諸佛 爲我作證
어찰찰진진 위아작증

내가 이렇듯 미래세가 다하도록 (과
보를 대신 받는 각오로) 인내하기를 서
원하노니
육근육진이 청정하고 심인(보살이 무
명 번뇌를 끊고 온갖 법이 본래로 고요
하여 텅비었음을 깨닫기까지의 열가지
안주의 인)을 고루 갖추고 다른 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일체지를 깨우쳐서 여래를 따라 중중
무진 중생계 가운데 몸을 나누어 불사

내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리석은 까
닭에 매사에 애착이 많아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사람·애착에
목말라 이를 키워왔고 사된 견해를 무
수히 키워 술을 이뤘으니 해탈을 하지
못했도다.

이제 부처님을 대향(수계)에 큰 서원
을 발하옵니다.
원컨대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음욕에 젖지 않겠으며
원컨대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으며
원컨대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說復淫欲 當因地獄 住火坑中 經無量劫

“어리석은 까닭에 사된 견해 숲 이루니
가피력으로 미혹구름 걷히게 하소서”

설부음욕 당타지옥 주화경중 경무량겁
一切眾生 爲淫緣故 應受苦報 我當代受
일체중생 위음원고 응수고보 아개대수
說復飲酒 當因地獄 飲洋酒汁 經無量劫
설부음주 당타지옥 음양동중 경무량겁
一切眾生 爲酒緣故 應受苦報 我當代受
일체중생 위주전도 응수고보 아개대수
說復食肉 當因地獄 吞熱鐵丸 經無量劫
설부식육 당타지옥 탄열철환 경무량겁
一切眾生 爲食肉故 應受苦報 我當代受
일체중생 위식육고 응수고보 아개대수

하기를 원하옵니다.
삼가 오로지 사방세계에 남김없이 통
찰하시며 만가지 공덕으로 장엄하시는
부처님께서는
할나도 쉬지 않고 돌고도는 이 티끌
세계에 저를 위해 증명을 지으소서.

說經難羅羅身 忘失本願
설경가라라신 망실본원
惟垂加被 開我迷雲
유수가피 개이미운
稽首如空 等一痛切
계수여공 등일통절

실사 제가 가라라신(공골·태중에 들
어 1주일이 되기전의 몸)으로 태증을
지나가 제 본원을 잊을지라도
오로지 가피력을 드리워주소서 저의 미
혹의 구름이 걷히게 하소서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평등일심(한마
음)으로 간절히 원하옵니다.

실사 다시 음욕에 젖으면 마땅히 지
옥에 떨어져 불구덩이에 머물며 무량겁을
지내겠지만
일체 중생이 음란에 빠진 까닭으로
마땅히 받게 될 괴로운 과보를 내가 몽
땅 대신 받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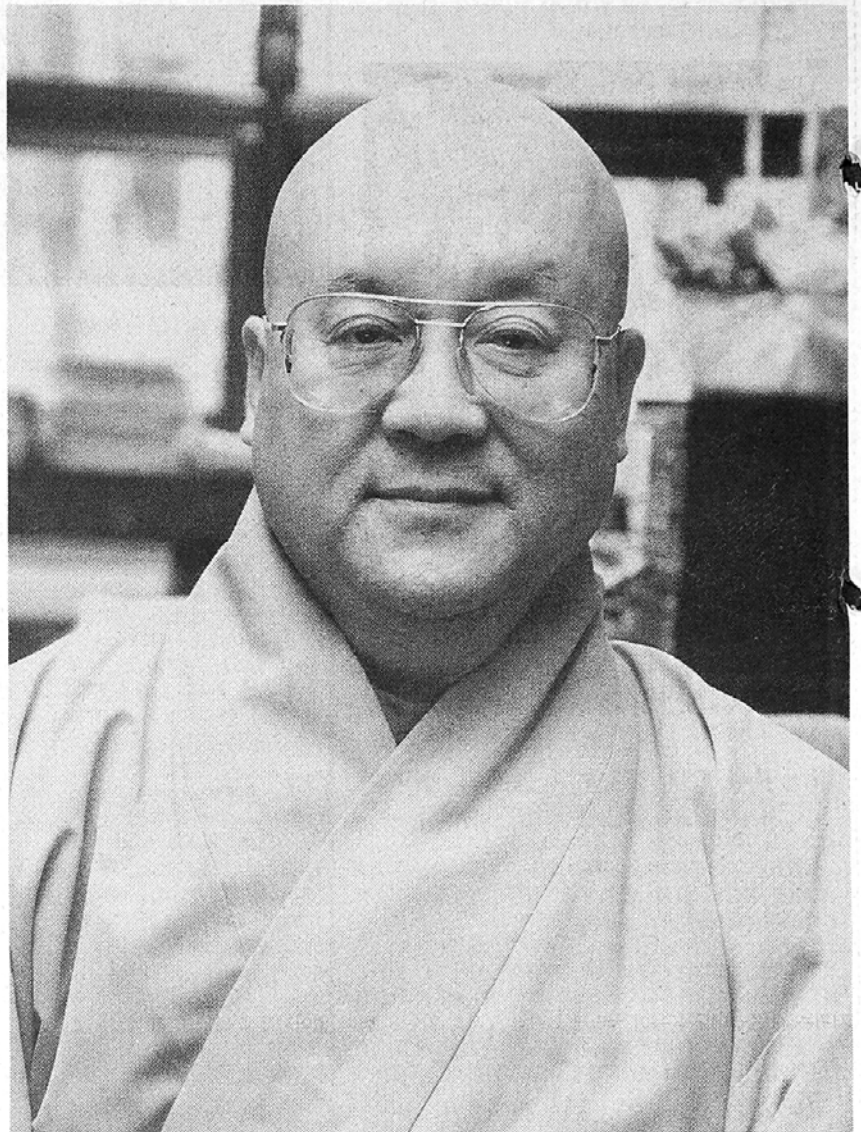
실령 다시 음주하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바다같이 많은 끓는 구리즙을
마시며 무량겁을 지내겠지만
일체중생이 술 먹고 잘못을 저질렀음
으로써 응당 받게 될 괴로운 과보를 내가
대신 몽땅 받겠습니다.

실사 다시 고기를 먹으면 마땅히 지

“病苦의 절망 극복하면

지 상 범 석

인 환 스 님
동국대 교수



약 력
· 31년 원산 생
· 52년 부산 선암
사에서 득도
· 64년 동국대 추
· 75년 일본 도쿄
대 대학원 文博
· 76~81년 캐나다
대사사 청진, 캐
나다 주재 국제
포교사
· 저서로 <신라를
표현구> 등 불교
사관론 논문 80
여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의 하나가
병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제 병이
들지 알 수 없는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의 건강
관리에 마음을 써서 질도 있는 생활을 하
도록 평소 노력하는 일이 가장 근본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병이 들어도 중병
이 되어서 오랜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든
지 혹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병이란 다만 육체적인 고통만을 가져오
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정신적인 괴로움
과 생활상의 어려움까지 함께 몰고 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
할 때 병을 더 중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왔을 때는 먼저 초조해하지
만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세히 한번 살
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대하는 태도에 두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을 오직
피하기 어려운 무서운 재앙으로만 알고 더
욱 더 소극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끝내 자
멸하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들어 고통받을때
괘유를 기도함은
생명을 아끼는 까닭
이것이 참 마음이며
부처님 자비에 통하는 마음”

병이 온 것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
의 시련이라고 받아 들여서 적극적으로 이
겨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병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
생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런
것이지만 괴로움이 없는 곳에는 참된
구원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병을 자기 인
생을 시련하는 좋은 기회로 받아 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인생에 처해 나
아가는 그 사람의 정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누가 처음에 커다란 충격과 깊은 절망을
겪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절망
의 말바탕에서만이 참되게 되살아 나는 싸
이 뜨게 되는 것이며 절망이아말로 희망의
어머니이며, 깊고 깊은 절망을 맞본 사람이
오래 커다란 희망에 사는 길을 바로 알
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으로 볼 때 병에는 도리어
세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생명을 자각하게 되는 공

덕입니다.
우리들은 평소 건강할 때에는 자신의
생명력을 별로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려 있어 버리고 있다 해도 일단 병들면
자신의 생명을 불안하게 느끼고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희망과 신념 그리고 가정
과 사업등을 세심 되새겨 보면서 중도에서
넘어질 수는 없다고 초조해 하며 번민하면
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를 바라며 되며
이러한 불행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까지 자
각하지 못하고 있던 자기 생명을 확실하게
자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신비에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까지 합니다. 병없음을 자랑하
는 사람이 반드시 건강을 안다고 할 수 없
을 것이며, 병을 앓아 보고서야 비로소 건
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기에 중병
에 걸렸다가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참
된 건강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과의 싸움에 승리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번뇌와 망상 허물과 더러움 등 부정
과 부패한 것을 회피하는 정신이 아니라

그러한 독소의 영향을 받고서도 약전 고투
하여 끝내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정신을 말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몸을 단련함이 없이 온실
에서 화초기르듯 하는 건강 관리만으로는
참된 건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
사상의 순결도 세상의 어지럽고 복잡한 것
을 도피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불안과 흥미한 것들의 속에 있으면
서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아말로 참으로 청정한 것이라 할 것이
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정신도 육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력은 고난을 겪을

Advertisement for Chungcheong Buddhist University 96 academic year new (revised) student recruitment summary. Includes details on admission requirements, application procedures, and contact information.